

2017년 5월 19일, 성산읍 온평리 고유을 씨 덕, 송정희 조사.
고유을(여, 1924년생, 성산읍 온평리)

- 줄거리: 옛날에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던 사람이 너무 착해 저승까지 그 소문이 나서 염라대왕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저승으로 데려갔다. 저승에서 심부름을 하고 이승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저승 가는 것을 까먹고 못 가니 저승사자가 다시 데려온 이후 저승과 이승을 오가지 못하게 되었다.

[제보자] 옛말 곧는 것덜은 보민, 하도 이 세상에서 못 살아도 애기덜을 서오누를 돌앗젠 헨가, 서오누이를 둘안에 남편은 죽어불고 헨 사는 사름이, 하도 착헤영.

어디 가그네 품 풀아그네 애기덜 즈낙 행 주젠 그 쓸을, 떡이라두 큰일 밧디 가민이, 떡 흐는 디라도 강 떡을 빌영 오당이 사름이 하도 세염이 종앙 누게 배고프덴만 허민, 애기덜 줄 생각 안 헤영 앓영 오단 거라도 다 줘분덴. 경 행 소문이 나나네, 저승에서 저승체시가 걸언 사람을 보내연에 아무 질목쟁이에 강 앓아시민, 오늘은 그 사름이, 솜싹 좋아그네 막 음식은 잘허난 음식허는 디서 불른 모냥이라. 요세, 저, 무신, 기술자덜?찌, 음식허는 기술자덜?찌.

경허난 그디 가나네 저물앙 일 허나네, 그디서 헨 음식을 애기덜 주렌 주엇어. 그땐 품삷이엔 헨 건 엇인 때나네. 노력허민 먹을 걸로나 주곡, 그자 그추룩 헨 때난. 그걸 빌언 오단 보난 저승에서 보낸 사름이 질레에 앓앗단에 남자가.

“당신, 가정 가는 거 뵈이니?”

허나네,

“아이고, 오늘 사또 잔치허는 디, 그디 간에 이제 일을 좀 노력헤 주나네, 먹을 걸 애기덜 주렌 헨 그걸 가정 오노렌.”

허나네,

“아이고, 나가 배고판에 건질 못허켄, 건질 못허난 그걸 날 주민 먹어그네 나가 좀 살아나젠.”

경 허렌 허난,

“아이고, 우리 애기덜은 나 갈 디만 기돌런 앓안 굶언 사는다.”

그처럼 허난,

“애기덜, 집이 신 애기보단, 이디 신 사름이 더 죽어질 지경이나네, 그걸 날 좀 주민 안 뉘크넬?”

허난, 그거 주난 그 사름이 문짝 다 먹어비엿어. 다 먹어부난 빈 손에 온 거 아니. 빈 손에 오명도게 애기덜 굶을 생각을 허난 막 소꿉은 아팠주. 경 해도 그 사름이 곧 죽어지켄 허는다, 집이 신 애기덜 살리쟁, 애기덜은 혼 때 굶은 것은 죽진 안 헐 거니깐.

경 행 다 줘된 오란 허난, 저승을 이젠 그걸 가정 갖어. 그 사름이 아정 들어간. 사실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, 이 사름이 착헌 사름인? 라, 경 행 자기가 배고판 곧 죽어지켄 허난 다 털어줘 뉘에 덜언 먹고, 덜언 아정 가고 헛주게. 경 헨 먹는 핑계 허멍 아멩해도 숨겨사 앓어갓인디, 그처럼 허난, 경 헨, 다 줘된 맨손에 가멍,

“아이고, 애기덜은 가민 즈낙을 굶을 철인디, 굶을 철인디.”

허멍 그냥 가렌, 그처럼 경 곤 말. 아, 요 사름이 확실히 착허긴 착헌 사름이로구나, 헤네 저승을 돌아갓젠. 그 사름을이, 이제, 염려대왕 심바람허렌, 저승을 돌아가나네, 음식을 만들렌 헨 건 잘 멘들아. 재료는 주니까. 만들렌 헨 건 잘 만드난, 염려대왕이 살기는 막 좋는다, 이승서 애기덜만 세 개 내비뉘 가난 애기덜이 살 수가 었어. 경허난 나만 살민 안 뉘겟다, 이젠 이 사름을, 이승더레 보내영, 막 보내진 못헐 거난, 밤이 가그네 애기덜 옷 빨아주곡, 먹을 커 헤 줘두곡, 머리에 니 인 건 니 잡아두곡, 그처럼 행 오렌 허문 혼 며칠을 뎡기단 보난, 이 구신은 세백이 뉘여그네 새로 혼 시가 념영 열두 시가 념어불민 못 간당, 그 곤지 안허여, 구신은 돌아가질 못헌덴 곤주게.

그처럼 헨 허난, 경 정 허는 게 애기덜 니 잡아주고, 뉘허고 허단 보나네 기냥 시간을 념는 중 몰란. 시계도 었인 때고 허난, 하늘러레만 베레도게, 하늘러레 베령.

옛날 어른덜은 우리 두린 때도 보민, 벨 보곡, 돌 방 멧 시 뉘엿젠 행 제도 지내고 무시거 허곡 허는 건디. 그날은 벨도 아니 나곡, 돌도 아니 나곡 허는 날이난 오는 중 몰르게 새날은 들어부난 저승은 가지 못헤분 거라. 가지 못허난 이젠 안 가나네 저승체시가 또 잡으레 오랏어. 잡으레 오란,

“무사 커싱 가그네 애기덜이, 뒷바라지나 헤줘 텡 오렌 허난 아니 오랏이니?”
허난,

“시간 가는 중 모르니까. 요거나 헤동. 예. 녹져 텡 가져, 저거나 헤줘 텡 가져,
허당 보난 새날은 들어부난 못 갓?렌. 안 가젠 헨 건 아닌디 못 가?렌.”

그추록 허나네. 이젠 저승광 이승을 곱을 갈라사 허주, 저승 갓단 사람이 이디 보
내면은, 이런 착각이 자꾸 실 거니깐이 저승은 헨 번 가민 보내지 안 허겟다 헤연
그땐 보내지 안 헛젠.

경 곱아. 그런 역스덜이. 경 허나네 옛날은 저승은 갓다왔다 허는디이, 그 사름이
경 헨 후젠 요 사름은 저승서 필요허게 쓸 사름인디, 이승을 가그네 시간 전이 오
문 허주만, 아니 오란 늦추와부난 못 오란 허난 잡으레 간 잡아간 후젠 안 보낸.

이젠 저승광 이승을 곱을 갈라베여사 헛켄 헤네, 가면은 안 보내주엇젠. 쟁 헨 헛
젠 말은 들어도, 우린 무시거, 글을 알앗이민 무시거 책이나 뵙 그런 거 알리야. 그
런 옛말 곱는 거나 듣곡.

- 핵심어 : 이승, 저승, 저승체시, 떡, 염라대왕, 음식, 곱